케이콘텐츠의 확장에 주목하는 OTT 시장

BTS 걸어온 길·봉준호 미공개작…‘다큐 재탄생’

케이(K)팝·케이무비 등 케이콘텐츠에 대한 글로벌 인기가 지속되면서 각 OTT가 케이팝 스타나 케이콘텐츠를 중점적으로 다룬 다큐멘터리로 장르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드라마나 예능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제작비로 높은 화제성 등의 특장이 있는 케이콘텐츠의 효율성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방탄소년단, 슈퍼주니어(위쪽 큰사진부터 시계반대방향으로) 등 케이팝 스타를 내세운 다큐멘터리가 인기를 끌고 있다.
사진제공 | 월트디즈니코리아·왓챠·티빙 제공

디즈니+, BTS·슈주 다큐 준비 중
티빙 ‘케이팝 제너레이션’ 곧 공개
왓챠는 아이돌 멤버 4인 다큐 선봬
넷플릭스, 봉준호의 ‘노란문’ 조명

● “케이팝 콘텐츠 더욱 확장”

지난해 방탄소년단의 미국 LA 콘서트 실황 다큐멘터리를 공개해 쏠쏠한 재미를 봤던 디즈니+는 올해도 방탄소년단을 내세웠다. 구체적인 공개 시기는 현재 논의 중인 다큐멘터리 ‘BTS 모뉴먼츠: 비욘드 더 스타’를 선보인다. 데뷔부터 현재까지 기록한 시리즈로 멤버들의 소소한 일상과 앞으로의 계획을 담는다. 이와 별개로 멤버 제이홉의 단독 다큐멘터리도 준비 중이다.

월트디즈니 컴퍼니의 제스카 캠 앵글 아태지역 콘텐츠 및 개발 총괄은 지난해 11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디즈니 콘텐츠 쇼케이스 2022’에서 콘서트 실황 등 방탄소년단 관련 콘텐츠로 거둔 성과에 대해 강조하며 “한국 콘텐츠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케이팝”이라면서 “케이팝 관련 콘텐츠를 더욱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즈니+는 18일 공개하는 ‘슈퍼주니어: 더 라스트 맨 스탠딩’, 이후 NCT127의 ‘더 로스트 보이즈’ 등 다양한 케이팝 스타를 다룬 다큐멘터리도 줄줄이 선보일 예정이다.

국내 OTT들도 케이팝 다큐에 힘 쏟고 있다. 왓챠는 오마이걸 효정, 더 보이즈 큐, 에이티즈 우영, 르세라핌 김채원 등 네 명의 케이팝 그룹 멤버들이 아이돌 가수가 아닌 ‘나’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를 3일부터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티빙은 케이팝의 30년 역사를 조명하는 ‘케이팝 제너레이션’ 이달 중 공개한다. 강타, 슈퍼주니어, 샤이니, 2PM, 엑소, NCT, TXT, 아이브 등 1~4세대까지 케이팝 그룹이 출연하며 케이팝의 세계적인 영향력에 대해서도 조명한다.

● OTT시장의 블루오션

넷플릭스는 영화 ‘기생충’으로 한국영화의 글로벌 영향력을 확장한 봉준호 감독의 20대 시절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노란문: 봉준호 감독의 미공개 단편 영화를 찾아서’(가제·노란문)를 올해 공개한다. 1992년 열 명 남짓한 관객들 앞에 딱 한 번 상영됐던 봉 감독의 단편 애니메이션인 ‘룩킹 포 파라다이스’를 찾아 나선 영화 동아리 ‘노란문’ 회원들의 여정을 담는다. 버라이어티 등 미국 주요매체들은 “봉준호 감독은 한국영화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라면서 “위대한 예술가의 창조적 기원을 조명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젊은 영화광들이 등장했던 시대까지 조명할 작품”이라고 관심을 드러냈다.

한 OTT 관계자는 역시 “영화 및 드라마와 달리 상대적으로 적은 제작비용으로 밀도 있는 제작이 가능한 다큐멘터리가 넘쳐나는 OTT 콘텐츠 시장의 블루오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는 “두터운 팬층을 확실히 공략할 수 있는 콘텐츠라 앞으로 이러한 시도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피 땀 눈물?’ 방탄소년단의 맏형 진(왼쪽에서 3번째)이 화생방 훈련을 마친 후 괴로운 듯 얼굴을 찌푸르고 있다. 사진출처 | 더캠프

중대장 훈련병 뽑힌 BTS 진 화생방 훈련으로 ‘피땀눈물’

군 신병교육대에서 훈련 중인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진(김석진·30)이 ‘중대장 훈련병’으로 뽑혔다.

8일 육군에 따르면 진은 훈련병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고, 인지도가 높다는 점에서 중대원들의 지지를 받아 중대장으로 됐다. 지난달 13일 경기도 연천 5시단 신병교육대대로 입소해 한창 훈련을 받고 있다. 중대장 훈련병은 훈련병들이 자체적으로 선발하는 것으로, 간부 지시를 중대에 전달하고 점호할 때 중대 대표로 경례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가수 비도 2011년 교육대에서 중대원들에게 모범이 되어 중대장 훈련병이 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눈길을 끄는 것은 진의 화생방 훈련 모습이다.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진이 화생방 훈련을 바로 마친 후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고, 동기들이 진의 얼굴에 물을 부어 씻어주는 모습(사진)이 담겨있다. 사진을 올린 게시자는 “진이 막상 군대 오니 군 생활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서 호감도가 올라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개된 사진은 전날 대국민 국군 소통 서비스 ‘더캠프’의 연천 5사단 신병교육대 카페에 올라온 사진 중 하나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사진이 여러 모로 화제를 모으자 ‘더캠프’는 화생방 훈련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해외 팬들의 우려가 이어지자 해당 사진을 삭제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연예뉴스 HOT 3

강민경 의류 쇼핑몰 채용 공고 ‘열정페이’ 논란

듀오 다비치의 멤버 강민경이 직접 운영하는 의류 쇼핑몰 채용 공고로 인해 ‘열정페이’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최근 자신의 의류 쇼핑몰에 고객 응대 전반 및 물류센터와의 소통 등을 맡을 CS(고객서비스) 정규직을 채용한다며 경력 3~7년, 영어 가능 등의 지원 조건을 기재한 공고를 올렸다. 이후 누리꾼들은 2500만 원으로 기재된 연봉이 최저시급 수준에 머물고, 맡기는 업무가 지나치게 많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강민경은 개인 SNS를 통해 “담당자 착오로 신입 연봉이 기재됐다”고 해명하며 해당 공고의 연봉 부분을 ‘면접 후 결정’으로 수정했다.

블랙핑크 ‘핑크 베놈’ 뮤비 조회수 5억건 돌파

걸그룹 블랙핑크의 정규 2집 선공개곡 ‘핑크 베놈’ 뮤직비디오가 조회수 5억 건을 돌파했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5일 공개된 뮤직비디오는 7일 오전 1시 7분경 5억 뷰를 넘겼다. ‘핑크 베놈’은 블랙핑크 특유의 카리스마가 돋보이는 힙합 장르의 곡이다. 뮤직비디오는 공개 24시간 만에 유튜브에서 9040만 뷰를 기록해 여성 가수 세계 최고 기록을 경신했고, 케이팝 걸그룹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인 29시간 35분 만에 1억 뷰를 달성했다.

문체부, 방송영상콘텐츠 예산 1235억원으로 확대

문화체육관광부가 방송영상콘텐츠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올해 예산을 1235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지난해 461억 원 대비 168% 증액한 규모다. 8일 문체부의 발표에 따르면 ‘OTT 특화콘텐츠 제작 사업’ 예산의 작품당 지원 단가는 최대 30억 원으로 상향했다. 관련 예산 확대는 지난해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을 받아 26.9%의 시청률을 기록한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과 같은 지원성과를 이어나가려는 취지다. 이 사업은 국내 제작사와 OTT간 지식재산권 공동 보유와 국내 OTT를 통한 1차 방영 의무를 조건으로 한다.

쏟아지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한국 배급사 개봉 시기 ‘눈치 싸움’

미션 임파서블7·존 윅4 등 위협
마블·DC도 자존심 회복에 나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일찌감치 개봉 일을 선점하면서 한국영화들이 개봉 시기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탑건: 매버릭’, ‘아바타, 물의 길’ 등 시청각적 볼거리가 많은 블록버스터 위주로 극장 관람을 택하는 관객의 성향이나 방식 등이 늘어나자 할리우드 영화와 맞대결을 피하기 위한 한국영화 배급사들의 고민이 깊어졌다.

특히 주요 배급사들이 감염증 사태로 개봉이 미뤘던 영화들을 대거 라인업에 포함하면서 개봉 일을 정하기 위한 눈치싸움이 더욱 치열해졌다. 배급사마다 지난해에 비해 2~3배가량 많은 영화를 올해 선보일 전망이다.

한 배급사 관계자는 “‘한산: 용의 출현’, ‘헌트’ 등 기대작이 몰려 ‘관객 나눠먹기’가 됐던 지난해 여름 성수기 극장가와 마찬가지로 ‘출혈경쟁’이 또다시 일어나게 생겼다. 여기에 연이어 쏟아지는 할리우드 영화까지 피해야 한다”며 “그렇다고 창고에 영화를 계속해서 묵히기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토로했다.

가장 위협적으로 꼽히는 할리우드 영화는 지난해 ‘탑건: 매버릭’(탑건2)으로 817만 관객을 모은 톰 크루즈의 새 영화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파트1’(미션 임파서블7)이다. ‘미션 임파서블’의 5년만의 속편으로 7월 개봉 예정이다. ‘탑건2’ 개봉에 앞서 한국을 찾았던 톰 크루즈는 “내년 ‘미션 임파서블7’로 다시 내한하겠다”고 밝혀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키아누 리브스의 액션스릴러 ‘존 윅4’, 카체이싱 액션 ‘분노의 질주10’, 로봇 블록버스터 ‘트랜스포머: 라이즈 오브 비스트’, 해리슨 포드가 15년 만에 복귀한 속편 ‘인디아나 존스5’ 등이 상반기에 개봉한다. 하반기에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펜하이머’, 티모시 샬라메의 ‘듄: 파트2’, 대표 SF 시리즈 ‘스타워즈: 로그 스쿼드론’과 ‘스타트렉4’ 등이 줄줄이 극장에 걸린다.

최근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극장에서 다소 부진한 성적을 내고 있는 마블·DC스튜디오의 슈퍼히어로 영화들도 자존심 회복을 위해 나선다. 2월 ‘앤트맨과 와스프: 퀀터매니아’를 시작으로 ‘샤잠2: 퓨리 오브 가즈’,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VoL.3’,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스파이더버스’, 박서준 출연으로 화제가 된 ‘캡틴 마블’의 속편 ‘더 마블스’가 매달 한 편씩 개봉 예정이다. 2018년 ‘아쿠아맨’의 속편 ‘아쿠아맨과 로스트 킹덤’은 12월 극장에 걸린다.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파트1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박찬욱 감독 ‘헤어질 결심’, 11일 골든글로브 들어올릴까

비영어권 영화 작품상 후보로 선정
3월 아카데미선 4개 부문 예비후보

박찬욱 감독의 영화 ‘헤어질 결심’이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트로피를 들어 올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11일(이하 한국시간) 미국에서 열리는 제80회 골든글로브에서 ‘헤어질 결심’이 ‘비영어권 영화 작품상’ 부문 후보에 올랐다. 골든글로브는 아카데미(오스카상)와 함께 미국을 대표하는 양대 영화상이다.

‘헤어질 결심’은 아카데미 국제영화상 예비후보에도 올라있다. ‘아카데미 전초전’으로 불리는 골든글로브에서 수상하면 3월 13일 열리는 아카데미에서도 수상 전망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박 감독은 이번 시상식에 앞서 각종 해외 시상식에서 수상을 이어가고 있다. 제76회 영국 아카데미(BAFTA) 4개 부문의 예비후보로 선정됐다. 7일(한국시간)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영국영화TV예술아카데미가 24개 부문별 예비후보를 발표한 가운데, ‘헤어질 결심’이 감독상, 외국어영화상, 편집상, 각본상에 이름을 올렸다. 감독상 후보에는 16개 작품이 올랐고, 나머지 부문에서는 각 10편씩 선정됐다. 최종 후보는 19일 발표되며 시상식은 내달 19일 열린다.

특히 박 감독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수상 2년 전인 2018년 영국 아카데미에서 ‘아가씨’로 한국영화로는 처음 외국어영화상을 받아 올해 두 번째 수상에도 기대가 모아진다.

미국 주요 매체 뉴욕타임스의 수석 평론가 마놀라 다기스는 박 감독을 오스카 감독상 후보로 추천했다. ‘헤어질 결심’의 주연 배우인 탕웨이를 여우주연상 유력 후보로도 꼽았다.


헤어질 결심

다기스는 ‘헤어질 결심’을 “미로와 같은 아찔한 즐거움을 주는 작품”이라고 소개하며 할리우드 역사상 최고의 감독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앨프레드 히치콕의 걸작 ‘현기증’과도 비교했다.

이승미 기자